

학폭에 멍든 피해 가족 결국 삶의 터전 등졌다

잊지 말고 기억해요

2021년 사건·사고 결산

<2> 광주 고교생 학폭 사망 그 후

광주 모 고교 2학년생 A군은 지난 6월 2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여등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급박한 선택을 했다. A군은 '학교 폭력으로 힘들지만 너희들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고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고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모든 게 마무리된 듯 했지만 A군 가족들 시간은 아들이 떠나간 그 날에 멈춰 있다.

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믿을 수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설명해줄 수도 없었다. 가해학생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다. 재판에

아버지 생업 정리·동생은 전학

잘못도 없이 되레 떠날 준비

가해학생들 진심어린 사과 없어

유족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정부 잇단 대책...학교현장 바뀌길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 '(A군이) 도발해서 그랬다'는 떠넘기기식 진술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재판이 열릴 때면 아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떠올리면서 몸서리치고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재판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태껏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루에도 몇 십번씩 되뇌인다.

A군 가족은 아들과 함께 했던 광주에서의 생활을 정리 중이다. A군 아버지는 10여 년간 이어왔던 생업을 접었다.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재판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뒷전이 됐던 일이지만 거래처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 아들의 기억이 생각나는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집을 구하고 이사를 계획이다. A군 동생은 먼저 광주를 떠났다.

A군 아버지는 "이곳에 남아있기보다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정부는 A군 가족의 청원에 공식 답변을 했었다. 정중철 교육부 차관은 당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늘리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최근 열린 제 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2차피해 방지 강화 등이 골자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 기록 삭제와 관련해서도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반영해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송비와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생 관찰,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폭 사안조사를 하도록 가이드북에 담을 계획이다.

A군이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도 광주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괴롭힘을 받았던 피해 학생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대책으로 학교 현장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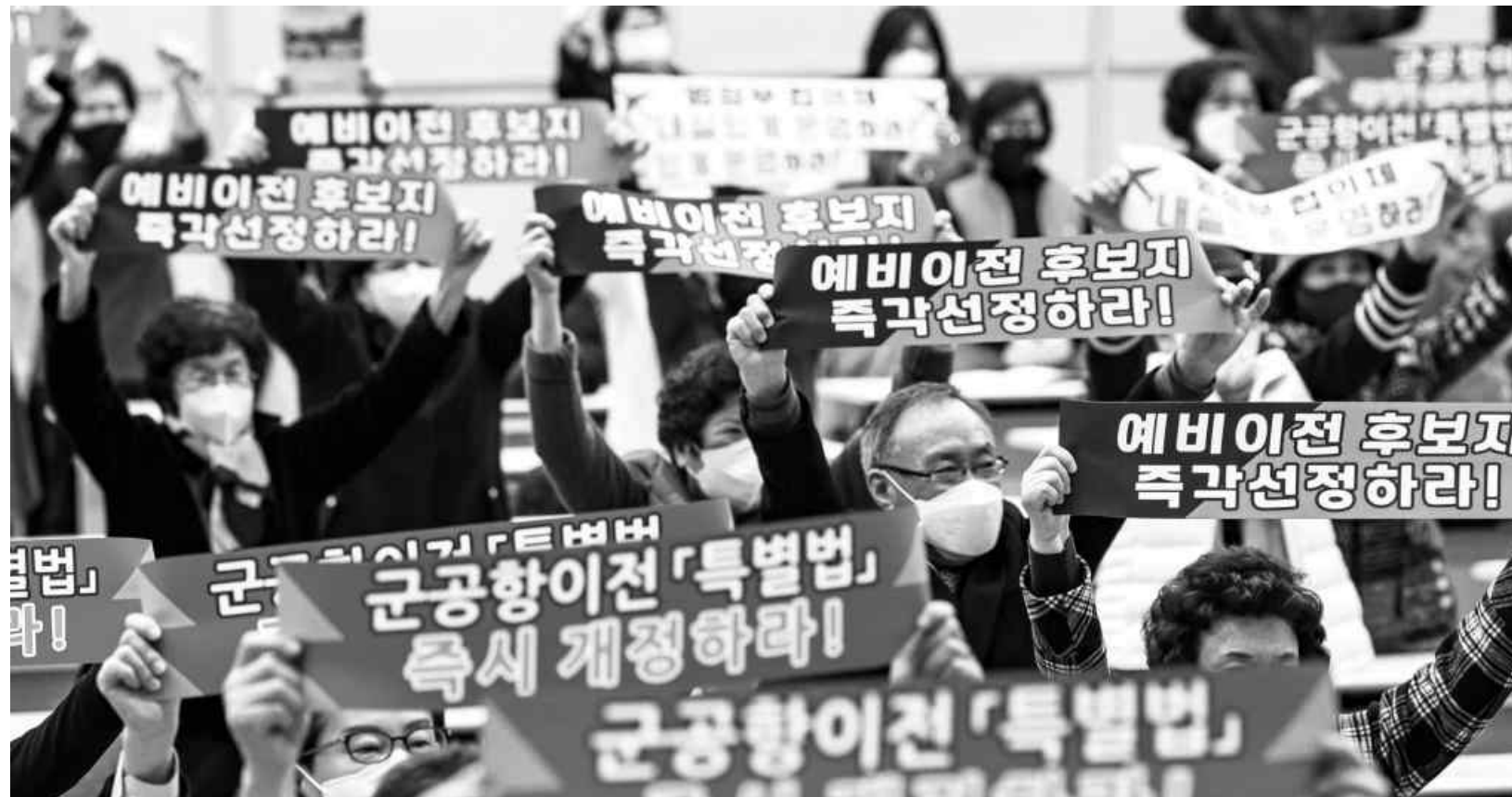
"선물 받을 명단 7명 추가 양향자 의원 지시 있었다" 사촌동생인 전 보좌관 증언

양향자 국회의원(54·광주 서구을)에 대한 재판에서 "선물을 받을 사람 7명을 명단에 추가하라는 양 의원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지역사무소 전 특보 A(52)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의원과 그의 사촌동생인 전 보좌관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천혜향 과일 상자(190만 원 상당)를 돌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동 피고인 A씨와 지역 의원사무소 직원, 양 의원의 남편, 의원실 보좌진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석에 선 A씨는 "설 명절 선물(1530만 원 상당) 수령 대상자 1차 명단(300명)을 제외하고 2차로 26명을 선정해 추가로 과일을 보냈다. 26명 중 7명은 양 의원의 지시로 명단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다만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명단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 촉구. 광주군공항이전 대정부 촉구 및 범시민보도대회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른 연료탱크서도 용접작업 했다

여수산단 화재 사고... "비용 줄이려 연료 남긴 채 작업" 지적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화재사고(광주일보 12월 14일 6면)와 관련, 화재 폭발사고가 났던 연료탱크보다 앞서 실시했던 다른 탱크에 대한 배관연결작업 과정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노동청 조사로 확인됐다.

13개 연료탱크 중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개의 탱크에서의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난 점을 감안하면 저장탱크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이일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A플랜트가 작업을 끝낸 다른 연료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한 흔적을 노동청이 확인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A플랜트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회수하기 위한 배관(직경 2.5cm) 연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용접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강 의원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노동청이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탱크의 고정 부분을 확인해 탱크 내 용접 작업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화재가 발생한 연료탱크 내부에 30%에 달하는 유기화합물질인 이소파라핀류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이일산업측이 앞선 브리핑에서 인정한 상태다. 결국, 용접 등 화기 작업의 경우 저장 탱크 내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화기작업 화재폭발 예방매뉴얼'을 어긴 채 작업이 이뤄졌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관계자는 "연료를 3분의 1 가량 남겨놓고 작업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용 줄이기"라며 "남은 연료를 탱크로리 로 옮기고 내부청소를 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일산업 화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송치

숙취운전으로 사고를 낸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은 20일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출

근하다 옆 차선 차량과 충돌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A지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지청장은 지난 3일 오전 여수지역 IC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 옆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지청장의 혈중 알콜농도는 0.044%인 것으로 알려졌다.

A지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9시간 가량 잔 뒤 출근하던 중 차 안에 떨어진 휴대 전화를 주우려다 운전대가 꺾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지청장은 앞서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불찰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만취운전으로 차량 4대 "꽁" 광산경찰, 공무원 입건 조사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공무원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 모 자치구 소속으로 이날 직위 해제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